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program names, times, and channels.

“과거 내 모습 닮아 애뜻하죠”

영화 ‘약장수’ 주연 김인권
소시민 가장의 애환 담아



“주연 배우요? 떠올려서 말고 싶은 마음은 늘 있죠. 저는 코미디언과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비스타가 관객이 보고 싶어하는 배우라면 코미디언은 관객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배우예요.”

오는 23일 개봉하는 영화 ‘약장수’의 주연을 맡은 영화배우 김인권(37·사진) 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관객들은 아직 김인권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낯설다. 지금까지 그의 영화상 수상 내역만 봐도 모두 조연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가 ‘방기방기’, ‘강철대오 : 구국의 철가방’, ‘전국 노래자랑’, ‘신이 보낸 사람’에서 주연 배우로 거듭나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조연 전문가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은 것일까. 김인권은 “제가 주도하는 작품을 하게 되면 뭔가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요. (주연 배우로서의) 기회가 자주 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영화 ‘약장수’는 노인을 상대로 각종 건강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파는 홍보관에 취직해 웃음과 눈물을 팔아야 하는 한 가장과 사람이 그리워 홍보관을 다닐 수밖에 없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김인권·박철민이 주연을 맡아 배역을 잡게 될 것으로 예상하기 했지만, 사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서글픈 현실을 마주한 영화에는 페이스(연민을 자아내는 힘)가 짙게 묻어났다.

영화는 바람 끝에 선 한 소시민 가장의 눈물겨운 생존기를 통해 실업 문제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등 한국 사회의 현실을 묵직하게 담아 냈다. 김인권은 영화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편견을 하지 말고 좀더 이해를 해달라. 그러나 아픈 딸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가장인 탓에 홍보관에 취직한다.

김인권은 “감독님이 한 홍보관의 상황을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공부했다”고 소개했다. 영화에는 해당 홍보관에 실제로 다니는 노인들이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영화가 자신의 실제 삶과 비슷하다고 했다. 과거 서울로 상경해 반차방에서 살며 어려웠던 시절과 몇 년 전 부산에 촬영차 내려갔을 때 첫째 딸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어쩔 할 바를 할지 몰랐던 감정이 떠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김인권은 이번 작품이 흥행을 떠나 이렇듯 자신의 삶을 떠올리게 해준 고마운 영화라며 애뜻함을 표현했다.

“약장수 촬영하면서 참 좋았어요. 제게 맞는 옷을 점점 찾아가는 거 같아요. 소시민 약자를 그리는 시나리오에 걸리는 거 보면 그런 역할을 소화하는 게 제게 맞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는 영화 ‘약장수’와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저스2’가 같은 날 개봉하는 사실에 대해 “어벤저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의 때문에 피해를 볼까 걱정돼요”라며 웃었다. “영화 속 제 역할이 자주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서 변주를 하지 않으면 지겨워질 수도 있죠. 그래도 제 것을 더 키우는데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 혼자 키운다고 키우지는 아니니까 늘 고민되기는 하죠. 관객에게 뭔가 보여주고픈 동기가 있다는 건 다행이죠. 관객들이 제 모습에 대해 지겨워할 걱정은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EBS 1

Table listing EBS 1 programs including 'EBS 생활 영어', '고급 요리', '세계테마기행', etc.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s including '올림포스',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etc.



“위 아래’ 1위 했으니 ‘아 예’로 굳혀야죠”

EXID 두번째 미니앨범 ... ‘허리춤’ 이어 ‘건방진 언니’ 콘셉트

“지금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위 아래’인 것 같아요.” 걸그룹 이엑스아이디(EXID·사진)가 두번째 미니앨범 ‘아 예’(AH YEAH) 발매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그룹과의 경쟁보다 자신들을 뛰어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나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위 아래’로 1위를 했을 때 혼자 안 울었다”며 “이엑스아이디가 받은 상이랑 비교돼 ‘위 아래’가 받은 상이란 생각에서다. 아직 ‘대세’, ‘핫하다’고 얘기하면 적응이 안 된다. ‘아 예’로 굳히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2년 데뷔한 이엑스아이디는 그간 주목받지 못한 팀이었지만 지난해 ‘위 아래’의 ‘직캠’(웹캠을 이용한 촬영)이 페이스북 등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노래가 음원차트에서 ‘역주행’하며 가요 프로그램 1위까지 올랐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명동 눈스퀘어에서 열린 야외 쇼케이스에서도 직캠을 찍는 수많은 남자 팬들이 물러 눈길을 끌었다. 하기와 정화는 “우리가 직캠 덕분에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예전엔 직캠을 모니터 용도로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분이 봐주셔서 감사하다. ‘위 아래’의 직캠이 조회수 1천 200만 건이라는 사실 100만, 1천만 건 넘는 게 어려운 일이다. 이번에 (조회수가) 100만, 200만 넘어서 행복할 것 같다. 앞으로 많이 찍어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와 멤버 엘리 등이 공동 작사·작곡한 타이틀곡 ‘아 예’는 평균 리듬과 후렴구, ‘아 예’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후크(Hook)가 담긴 힙합 댄스곡으로 ‘위 아래’의 연장선에 있다. ‘아 예’는 감탄사라기보다 지루하고 진부한 상황에서 ‘아 예~’라고 말하는 의미라고 한다. 하기와 헤린은 신곡이 전자 곡과 비슷하다는 평에 대해 “(신사동호랭이가) ‘위 아래’의 연장선이어야 사랑받을 것이라고 노린 것 같다”며 “두 곡의 구성은 비슷하지만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한다. ‘위 아래’보다 더 사랑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웃었다.

특히 이들이 ‘위 아래’의 골반춤으로 화제가 된 만큼 ‘아 예’를 살려주는 포인트 안무도 관심사다. 정화는 골반과 다리를 흔들는 ‘아 예’의 안무를 직접 선보이면서 “건방진 언니 콘셉트다. 안무가 후크를 잘 살려준다”고 말했다. 헤린과 솔지는 “골반보다 이번엔 종아리에 좀 더 주리가 간다”며 “종아리 근육 단련에 도움이 되는 춤이다. ‘위 아래’가 골반을 이용했다면 이번엔 무릎 아래쪽을 많이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위 아래’ 당시 곡 발표 후 몇 개월이 지나 음원차트 ‘역주행’을 한 만큼 이번엔 ‘정주행’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엘리는 “앨범이 잘 나왔다고 자부한다”며 “‘위 아래’ 때부터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헤린도 “부담이 안 됐다”며 “거짓말이지만 부담에서 ‘사랑해 주시겠지’란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3일(음 2월 25일 己未)

Table showing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their respective dates and lucky/unlucky numbers.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광주일보 독자专线 ☎010-9790-8237